

선하신 목사

Martin Nyström

기쁨찬양 선교단 역

선하신-목자-님 사랑하-는분- 주 인도하-는곳-

따라가- 리 주의말-씀을- 나 들기위-하-여

주 인도하-는-곳 가려 네 나를

푸른초-경과- 설 만한물-가로- 내

선하신-목자-님이-도-해 험한 산과골-짜기-로

내가 다닐찌-라도- 내 선하신-목자-님이-도해-

Copyright (c) 1986 Mersenthal Prodel Inc. Admin. By CopyCare Korea. Used by Permission.

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

1. 장의 물가로 강세를 뿌리며 평화로운 들불의 세월

2. 사랑이 우리를 빛처럼 새하늘이 - 생명 활짝 열린 다

회년을 향해 함께 가는길 주의 약속은 굳건하며

우 우 우 우

번씩 일곱 번 넘어져 도약속을 굳게 믿으며

아 념 이어져 도약속을 굳게 믿으며

<p>128편 1 복되여라, 주님을 경외하며 ○ 그의 길을 걷는자. 2 네 손으로 일하여 그것을 먹으니, ○ 그것이 네 복이며 너의 행복이다. 3 네 집 안방의 아내는 푸짐히 열린 포도나무 같고 ○ 밭상에 둘러앉은 네 자녀들, 올리브의 햇순같구나. 4 보아라,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 이렇게 복을 받으리라. 5 주께서 네 평생 모든 나날을, 시온으로부터 축복하시어 ○ 예루살렘의 번영을 바라다보며 6 아들 손자 많이 보게 하여 주시기를! ○ 이스라엘에 평화 있기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8 지나가는 이 아무도 “주님의 축복이 너희에게 있기를! ○ 주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복을 빈다” 하는 사람 없구나.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p>129편 1,2 이스라엘이 하는 말, “젊어서부터 받은 많은 학대에도 ○ 나는 꺾이지 않았었지. 3 밟가는 자들이 땅을 갈아엎듯이 ○ 내 등에 고랑같은 상처를 내었지만 4 의로우신 주께서는 ○ 악인들의 멍에를 박살내셨다. 5 시온의 원수들아, ○ 모두 망신당하고 물러들 가라. 6 지붕 위의 풀포기처럼 ○ 뿔을 새도 없이 시들어 버리리라. 7 베는 이의 손에도 ○ 묶는 이의 아름에도 차지 않으리니</p>	<p>130편 1,2 주여, 깊은 구렁 속에서 당신을 부르오니: 주여, 이 부르는 소리 들어 주소서. ○ 애원하는 이 소리, 귀 기울여 들으소서. 3 주여, 당신께서 사람의 죄를 살피신다면, ○ 감당할 자 누구이리까? 4 그러나 용서하심이 당신께 있사오니 ○ 이에 당신을 경외하리이다. 5 나는 주님 믿고 또 믿어 ○ 나의 희망 그 말씀에 있사오니, 6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보다 ○ 내 영혼이 주님을 더 기다리웁니다. 7 새벽을 기다리는 파수꾼처럼 ○ 이스라엘이 주님을 기다리웁니다. 9 인자하심이 주님께 있고 ○ 풍요로운 속량이 그에게 있으니 8 그가 이스라엘을 속량하시리라. ○ 그 모든 죄에서 구하시리라.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p>

복음서 요한복음 10:1-18

<p>"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게 들어갈 때에,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사람은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양들의 목자이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 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양들은 결코 낯선 사람을 따라가지 않을 것이고, 그에게서 달아날 것이다. 그것은 양들이 낯선 사람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러한 비유를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무슨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은 다 도둑이요 강도이다. 그래서 양들이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풀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p>	<p>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샅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 버린다. - 그는 샅꾼이어서, 양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이 있다. 나는 그 양들도 이끌어 와야 한다. 그들도 내 목소리를 들을 것이며, 한 목자 아래에서 한 무리 양떼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내 목숨을 기꺼이 버리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서 내 목숨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나는 스스로 원해서 내 목숨을 버린다.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것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명령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p>
--	--